

다산포럼



김한영
지식칼럼니스트

유튜브나 TV를 보면 많은 공공직사원이 ‘쿠데타’를 ‘구테타’로 잘못 발음한다. 교정·교열 상의 오류에 민감한 사람들이 ‘구테타는 틀렸다’고 수없이 지적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구테타’를 접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도 많다. 예전에는 순우리말 오류는 가볍게 여기면서, 한자 어·영어의 오류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문화적 사대주의’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역설적으로 이제는 ‘문화강국 코리아’의 자신감에서 ‘구테타’ 같은 오류를 허용하는 여유도 생긴 듯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도 자주 보이는 잘못된 표기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바로잡았지만, 초창기 표기가 여전히 보인다. Andrew를 ‘앤드루’가 아니라 ‘앤드류’, Matthew를 ‘매슈’가 아니라 ‘매튜’, basic을 ‘베이식’이 아니라 ‘베이직’으로 잘못 표기하는 사례도 흔하다.

영어에는 ‘교정·교열 상의 오류를 잡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다양하다. (grammar Nazi,

구테타도, 쿠데타도 이제 그만

grammar pedant, language purist, grammar stickler, proofreading perfectionist 등). 그러나 ‘교정·교열 나치’는 정작 잘못을 발견해도 ‘지적질’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봐 말을 아긴다. 괜히 잘난 척한다는 낙인이 두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식 표기였던 ‘고호·바하’가 ‘고호·바흐’로 정정된 지 오래지만, 일상 언어에서는 여전히 ‘고호·바하’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대화 중에 “고호가 아니라 고흐인데요”라고 정정하려면 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괜한 ‘왕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영어에는 ‘교정·교열 상의 오류에 둔감한 사람’을 일컫는 표현도 많다. (grammar slob, careless writer, sloppy proofreader, not a stickler for grammar, grammar agnostic 등).

그렇다면 인구 중 ‘교정·교열 나치’와 ‘교정·교열 불가지론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설령 ‘교정·교열 나치’가 1% 남짓한 소수라 해도, 이들이 정치권력이나 문화권력을 쥐고 있다면 영향력은 작지 않을 것이다.

‘교정·교열 나치’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처럼, ‘구테타’를 연발하는 공공직사원의 지식수준과 논리적 타당성을 의심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때로는 “하나를 보면 하나만 안다”고 인정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유교·불교·그리스도교 등 세계 종교의 경전은 모두 ‘교정·교열 완벽주의자’들의 손을 거쳐 정착했다. 정경화(正經化) 과정은 곧 편집과 교정의 역사였다. 그래

서 ‘교정·교열 마인드’를 갖춰야 성경 같은 경전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유가의 정명론(正名論)은 이름(名)과 실제(實)가 올바른 관계에 놓일 때 세상의 혼란이 바로잡힌다고 본다. 정명은 곧 정치(正治)의 출발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정명의 대상인 용어가 많다. 건국·광복·독립,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내란, 사태 등. 정파에 따라 용어와 정의가 다른 혼란 속에서는 정치(正治)는 커녕 정치(政治)도 어렵다. 다행히 일부 용어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교과서에도 반영됐다. 오래전부터 ‘동학난’이 아니라 ‘동학농민운동’, ‘동학 농민혁명’, ‘갑오농민전쟁’으로, ‘광주사태’가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다.

국제관계의 경우, 정명의 출발점은 외래어·외국어의 정음(正音)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은 백성의 의사소통과 한자의 올바른 발음이었다. 조선-중국 관계에서 올바른 발음과 표기가 ‘정명’의 시작이었듯, 오늘날에도 외래어의 정확한 표기가 필요하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무생(務生)’이 ‘머슴’으로, ‘부옥(釜屋)’이 ‘부엌’으로 바뀌었다.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가 된 것처럼, 다수가 ‘구테타’라고 하면 언젠가 복수 표준어로 등재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 ‘구테타’는 다른 발음이 아니라 틀린 발음이다. ‘구테타는 이제 그만’을 위해서는 먼저 “구테타는 이제 그만”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고



김용덕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광주는 최근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경쟁에서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다. 시민들과 함께 그 도전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비록 결과는 아쉬웠지만 광주가 보여준 준비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광주는 지난 몇 년간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우며 단순히 기술 중심의 도시가 아닌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시를 준비해 왔다. 강기정 시장이 강조해 온 “AI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도시”라는 비전은 기술 경쟁력 확보를 넘어 돌봄·문화·산업 전반에 AI를 융합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번 컴퓨팅센터 유치 실패를 단순히 실패이자 마지막 기회였다고 받아들이기보다, 새로운 방식의 연대와 실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난 10월 29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는 자치회를 중심으로 200여명의 어르신이 모여 자발적인 비상

광주 AI 생태계 구축…삶을 위한 AI 광주

연대 활동을 전개했다. ‘선배시민자원봉사 성과공유회’ 자리였는데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불발에 따른 광주 AI 생태계 조성 촉구 성명서를 직접 작성·발표하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은 단순히 기술 기반 산업 육성을 외친 것이 아니었다. 광주의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젊은 세대가 지역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AI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움직임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의지를 반영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지역 공공기관의 주체적 역할을 다스급 되새기게 된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광주시 산하 기관으로서 지난 17년간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건강·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기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내년에는 광주시 AI 디지털매우터 실증기관으로, 어르신은 물론 청년과 시민이 함께 AI와 디지털 복지를 배우고 이해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사업이 아니다. 광주가 준비한 기술을 삶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다.

또한 AI와 복지는 더 이상 별개의 행정 영역이 아니다. 치매 조기 발견, 낙상 예측, 고독사 예방, 건강 모니터링 등 복지 서비스는 이미 데이터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가 아닌, 삶을 위한 데이터가 되려면 복지 현장과 기술 현장이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광주가 지향하는 ‘AI 선도도시’란 결국 기술의 방향을 사람에 향해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도시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최근 광역시들이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광주가 AI를 중심으로 기술 생태계를 확장한다면, 전남은 전력과 농생명 자원을, 전북은 의료·바이오 역량을 갖추고 있다.

행정구역은 달라도 고령화와 돌봄의 문제는 국경은 물론 시·도의 경계도 없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시정의 방향과 보폭을 맞추되, 현장과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이 작동하도록 검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어가고자 한다.

광주가 준비한 기술과 정책이 어르신의 손끝에서 시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맡은 책임이자 사명이다.

비록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실패의 아쉬움은 남지만 희망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신뢰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잡은 방향이 시민의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오늘도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기고



이원근
광주시 동구 도시공간국장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를 부드럽게 깨우는 예술이다.”

시인 티치 나한의 말처럼 커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숨 가쁜 일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작은 여유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커피 소비국이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405잔으로 전 세계 평균(약 152잔)을 크게 웃돈다. 국내 커피전문점은 10만여 개에 이르며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몇 걸음마다 카페 한 곳쯤은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다.

광주시 동구 동명동은 그중에서도 감각적인 로스터리 카페와 예술이 공존하며 골목이 함께 숨 쉬는 카페거리다. 그러나 한때, 도시의 성장과 상권의 빠른 변화 속에서 동명동의 개성을 대표하던 로스터리 카페들이 하나둘 사라지며 카페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2021년 지역 상인과 주민, 로스터리 카페들이 동명동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뜻을 모아 시작한 축제가 바로 ‘동명커피산책’이다.

“좋은 커피는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믿을 아래 주민과 상인, 청년,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이 축제는

커피, 동명동 그리고 가을

단순한 커피 행사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의 문화를 지켜가기 위해 직접 기획한 로컬브랜드 축제다.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나선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동명커피산책은 지난 4회에 걸쳐 누적 방문객 약 9만명, 지역상권 매출 30% 증가를 기록하며 동명동을 대표하는 축제로 입지를 다졌다. 100여개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며 ‘커피로 지역을 살리는 축제’로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올해 축제는 ‘취향을 찾는 감각 여행(Taste Voyage)’을 주제로 8일 동명동 카페거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커피를 매개로 개인의 감각과 취향을 탐색하고 지역의 공간과 사람, 경험을 잇는 여정형 축제로 기대를 모은다.

축제의 출발점인 체크인 카운터 Departure Gate C(coffee)에서는 참여자에게 여권형 스탬프북을 배부해 나만의 취향을 찾아 떠나는 탐사의 순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지는 ‘TASTE LOUNGE(테이스트 라운지)’는 책과 커피, 음악이 어우러진 노천카페로, 방문객들은 커피향 속에서 잠시 머물며 감성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시그니처 프로그램 ‘JUST AWARD(저스트 어워드)’에서는 각 카페의 개성 있는 원두를 시음하며 자신만의 취향을 탐험할 수 있다. ‘NO RUN, JUST WALK(노런 저스트워크)’는 동명동의 20개 카페와 1개의 전시 스팟을 잇는 커피 골목 투어로, 시민들이 여권북을 들고 걸으며 향기와 이야기를 하나씩 모으는

경험을 제공한다.

개막 공연도 눈여겨 볼 만하다. ‘커피수목’에서는 한국화가가 커피로 수목화를 그리는 라이브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다. 커피와 클래식이 만나는 인문학 강연 ‘커피칸타타’, 청년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감성마켓 ‘동명마르셰’, 커피산책 굿즈와 커피 MBTI 원두샵을 운영하는 ‘동명면세점’ 등 감각적이고 참여형 프로그램도 골목 곳곳에서 이어진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커피 도시를 향한 실천적 시도다. ‘커피산책 ESG 캠페인’을 추진, 커피 한 잔에도 환경과 지역,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문화를 담아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선이공대학교 RISE사업단과 협력해 광주 김차·무등산 수박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디저트도 개발해 선보이며 청년 창업과 지역 브랜드 육성 기반도 다질 전망이다.

동명커피산책은 도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과정이자 사람과 문화가 함께 숨 쉬는 동명동의 이야기다. 커피에 진심인 장인의 솜씨와 지역 청년의 창의성이 피어나고 커피향이 가득 담긴 동명동만의 감성이 골목마다 스며든다.

다가오는 주말,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향기로운 동명동 골목을 따라 커피와 사람, 그리고 도시가 어우러지는 순간을 만끽하며 동명커피산책을 즐겨보면 어떨까. 카페들의 개성 있는 원두와 로컬 디저트를 경험하고 골목 곳곳에 스며든 이야기와 향기를 따라 걷다 보면, 자신만의 취향과 감성을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판독 하청’ 부른 원격의료…환자 동의 구해야

3차 진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들이 CT나 MRI 등 영상 판독을 환자 동의 없이 1·2차 병원에 맡기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추적검사를 받아온 50대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론화 됐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간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판독 하청’을 주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한 50대의 경우 암이 임파선을 타고 전이되고 있는 사실을 추적검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전이 사실을 알게 돼 과정을 확인해보니 영상을 촬영한 3차 병원이 정작 판독은 동네 의원에 맡겼다는 것이다. 환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당혹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3차 병원이 동네 의원에게 영상 판독을 의뢰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원인은 3차 병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

서 환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3차 병원들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허용한 원격 판독을 악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2003년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 판독을 허용한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중소병원이나 지방 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인데 3차 병원들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 몰래 판독 하청을 주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차 병원을 찾는 대다수 환자들은 영상 판독을 해당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판독 하청이 비밀비재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겠는가. 3차 병원의 판독 하청이 비록 위법은 아닐지라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며 찾았을 환자들을 속이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지금부터라도 외부 판독이 이뤄질 경우 환자에게 사전 공지를 하거나 사후이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18 왜곡 댓글…플랫폼 자율규제 한계 드러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5·18 왜곡의 대표적인 지만원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로 수차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에도 항소심인 광주고법 재판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국회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근절을 위해 2020년 5·18특별법을 개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의 댓글에는 왜곡과 폄훼가 넘쳐나고 뉴스 포털의 자동 필터링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5·18기념재단이 네이버 등 27개 인터넷 매체를 모니터링 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5·18 왜곡 댓글은 7934개에 달했다. 문제는 AI 필터링인 ‘틀린봇’으로 감지한 건수

가 전체의 8.48%에 그쳐 플랫폼의 자동 필터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댓글 작성자 가운데 다작자가 있어 이들이 왜곡 댓글을 올리면 다수가 동조하는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과 5·18 기념일이 있는 올해 5월, 대선 본투표 시점인 6월 순으로 왜곡 댓글이 급증한 것도 특징이었는데 이는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때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5·18을 왜곡 폄훼하는 뉴스 댓글에 대해서도 철폐를 내려야 한다.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5·18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無等鼓

“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됐다. 이에따라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정부는 안락사의 방법을 몇 종류 준비하여, 대상자가 그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화에 부수되는 국가 재정의 파탄이 일시에 해소된다고 한다. 1차 시행연도의 사망 예정자는 이미 70세가 넘은 자를 포함해 약 2200만 명, 2차 시행 연도부터는 해마다 150만명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과 고기’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첫 상영 당시보다 개봉관이 늘어나는 역주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사람과 고기’도 초고령화 시대에 접할 수 있는 빈곤 노인들의 생활에 주목한다. 집이 있어도 세금 낼 돈이 없어 폐지를 줍는 노인, 고양이와 살아가는 독거노인의 고독, 할머니 손에 큰 손자와 외의 간극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던진다.

영화일 뿐일까.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전남 27.4%)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도 5만 4760명이 나 된다. 70세 이상의 55.4%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 못되고 3500명이 넘는 노인들(광주 1761명·전남 1752명)이 한 달 내내 폐지를 주워 74만2000원을 손에 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2023년 38.2%)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영화 속 주인공은 내뽐는다. ‘늙었으니,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다. 그냥 죽어라 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

/김지을 사회부장 dok2000@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사 업 국 222-0541	
정 치 부 220-0634		(FAX 222-8005)	
경 제 부 220-0648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제 2 사 회 부 220-0680		업 무 국 220-0551	
디 지 털 부 220-0697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